

1. 교환학생 현지대학 신청서 작성(0.5장~1장)

- ① 현지대학 교환학생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제출한) 서류
- ② 현지대학 교환학생 신청 프로세스에 대해 작성
- ③ 준비하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부분

-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하고 나면 현지 대학에서 등록 메일과 함께 매뉴얼 자료들이 와. 그때 메일에 나와 있는 링크를 눌러 온라인 등록 폼을 작성해야 해. 본인의 이메일 주소와 등록메일에 있는 고유코드로 로그인하면 돼. 등록을 하고 나면 학교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username과 password를 메일로 보내줘. 이외에 여러 서류들은 UMove라는 페이지에서 관리할 수 있어. 이 페이지에서 숙소와 도착예정일 등 필수 정보들을 입력하면 돼. 등록을 마치면 Learning agreement를 작성해야 해. 이건 수강신청 과정이고, 마찬가지로 UMove에서 완료할 수 있어. 이 두 가지 절차를 마치고 현지에 도착하면 Matrícula라는 서류를 메일로 받게 되는데, 이걸 받고 나서야 Moodle이라는 강의수강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어. 이건 우리 학교의 코스모스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을 짚아보자면 사용하는 어휘가 낯설었던 거, 메일을 제외하고는 조언을 듣거나 궁금한 점을 물어볼 대상이 거의 없었다는 거였어. 알고 있는 영단어도 대학교에서 거치는 공식 절차에서는 조금 다르게 다가왔고, 이런 단어들의 뜻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수행하는 게 헛갈리더라. 그리고 준비하다가 모르는 점이 생겼지만 너무나도 사소한 거라 물어볼 상대가 없어서 임의로 판단한 경우가 많았어. 다행히도 너무 사소한 것들이라 임의로 판단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았지. 또 메일로 학교나 기숙사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사소한 뉘앙스 차이로 내가 작성한 내용이 실례가 되지는 않을까 하고 많은 고민을 거쳤던 기억이 나. 이밖에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궁금한 정보를 찾기 힘들었던 기억, 공지된 내용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생긴 답답했던 기억도 떠오르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이 고민의 과정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나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었어. 끝내 여기저기 물어가며 무사히 해결은 되었지만, 대부분이 한국에서 처리하던 것과는 꽤나 달랐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더라.

Dear students,
Your nomination has been processed and you should have a Registration email from our system.
UMove.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and complete your registration.
Find attached important documents for your upcoming stay.
You can also check them in our website.
<http://uhhu.es/estudios/documentos>
Best regards, Xavi Vazquez
Rector
PB.- IMPORTANT INFORMATION FOR MASTER STUDENTS:
Our master subjects are lectured in Spanish. We have a catalogue of subjects lectured in English, but they are bachelor subjects.
If you expect to carry out your master dissertation/thesis research, bear in mind that the dissertation (TFM) should be fully completed and read in the University of Huelva.
Note also that we will need a detailed abstract of the topic of your master dissertation so we can start looking for a suitable tutor. Note that this is subjected to availability of our lecturers.
It is important to notice in any case that go dissertations are guaranteed until we find you a specialized tutor.
Estimados estudiantes,
Vuestra nominación ha sido procesada y deberíais haber recibido un correo electrónico de registro de nuestro sistema UMove. Por favor, seguir las instrucciones indicadas y completar vuestro registro.
Adjunto documentos importantes sobre vuestra futura movilidad.
Los podéis consultar también en nuestra web:
<http://uhhu.es/estudios/documentos>
¡Un saludo desde Huelva!
Rector
PB.- INFORMACIÓN IMPORTANTE PARA ESTUDIANTES DE MASTER:
Nuestros asignaturas de nivel de master se imparten en español. Disponemos de un catálogo de asignaturas impartidas en lengua inglesa pero son asignaturas de nivel de grado.
Si pensáis hacer vuestro Trabajo Fin de Master en la UHU (TFM), tened en cuenta que necesitaremos un resumen detallado del tema de vuestro TFM para poder buscar un tutor adecuado (sujeto a la disponibilidad de nuestro personal docente).
Ningún TFM será garantizado hasta que no encontremos a un tutor especializado.



2. 비자 및 항공 (0.5~1장)

- ① 파견국가 비자 취득 방법
- ② 비자 취득에 걸리는 시간
- ③ 비자 취득 시 유의사항

- 스페인의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스페인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해.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비자 신청서, 여권용 사진, 여권, 현지 대학에서 보낸 입학허가서, 여행자보험증서, 자금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돼. 항목에 따라 복사본이 필요한 서류도 있어.(여권, 입학허가서, 보험증서, 자금증명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자금증명서는 자비가 아닌 경우 기준으로 설명하

자면, 재정보증서, 소득증명서, 은행 계좌 잔고 증명서, 거래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총 다섯 개의 서류가 필요해. 개인적으로는 이 자금증명서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제일 힘들었어. 왜냐하면 은행을 방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포스티유라는 국제 인증서가 필요한 서류들이 있었는데, 이것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증인이 공증사무실까지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거든. 서류 하나에 몇 만원씩 하다보니 거기서 부담감이 좀 생기기도 하더라. 비자를 취득하는 데는 시기마다 다르지만 나 같은 경우, 인터뷰 날로부터 3-4주 사이에 받을 수 있었어. 학업 시작일 기준 최소 2개월 전에 비자를 접수하는 것이 필수이기도 하고, 비자 인터뷰 예약은 빨리 차기 때문에 교환학생 합격 연락을 받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사관 방문 예약 일정을 잡는 것이 좋아. 따로 유의할 점은 모든 서류는 원본(컬러) 및 복사본(흑백, 단면인쇄) 한 부도 제출해야 한다는 것과, 대사관 인터뷰 날에 서류들을 제출할 때 원본과 복사본을 따로 정리해서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필요서류 목록에 나온 순서대로 서류를 준비하면 효율적인 일처리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네. 이외에 알고 있으면 좋은 것은 스페인 대사관 가는 길이 꽤나 가파른 오르막길이라는 거야.

필요서류 목록

구분	필요서류	유무	비고
1. 비자신청서: National Visa Application Form (주한 스페인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것)	X	X	
2.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흰색 배경의 여권용 사진 (비자 신청서에 부착하여 준비)	X	X	
3. 여권		O	
1) 출국예정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출국예정일 비자신청서에 기입하는 날짜 기준)			
2) 서중면의 소할 이상 남아있는 여권			
4. 스페인대장: 1부 40 등 1		O	
- 스페인어로 발급한 신분증본: 재출(만지서명)이 있는 컬러 스페인본 원본과 동일하게 인형함)			
- 학교장보: 비자신청자의 개인정보(성명, 여권번호) * 학업기간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			
1) 학생비자: 스페인 학교에서 발행한 입학허가서 원본			
2) 무급인턴: 스페인 회사에서 발행한 무급인턴 초대장 원본			
3) 무급연구생: 스페인 학교에서 발행한 무급연구생 초대장 원본			
4) 무급교원고: 스페인 학교에서 발행한 무급교원고수 초대장 원본			
5. 여행지보험증서: 스페인 체류기간 전체를 보장하는 보험		O	
- 의료 서비스 총 30,000유로 이상을 보장할 것 * (Reparation)본국(출국) 원복을 반드시 포함할 것			
6. 자금증명서 (A 또는 B로 준비): 스페인 현지에서 지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함			
A. 차비할 경우			
자금증명서: 영문으로 발급 후 해당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필수 (원본 서류가 국문일 경우 스페인어 번역·공증&아포스티유 필수) <소득기준: 연 20,000,000 원> (예)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근로소득세 원천징수증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증서 등		O	
은행 계좌 잔고 증명서: 영문으로 발급 은행에서 직접 발급 받거나 친위확인 코드가 있는 서류 <잔고잔액 기준: 20,000,000 원 이상> 거래내역서: 잔액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계좌에 대한 3개월지 이상의 거래내역 (예외적으로 국문 허용)		X	
B. 차비가 아닌 경우			
재정보증서: 본 조항 스페인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양식을 타자로 작성, 이후 재정보증인이 공증사무실에서 사본서명공증 받은 뒤 아포스티유 발급받아 제출 자금증명서: 영문으로 발급 후 해당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필수 (원본 서류가 국문일 경우 스페인어 번역·공증&아포스티유 필수) <소득기준: 연 20,000,000 원> (예)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근로소득세 원천징수증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증서 등		O	
은행 계좌 잔고 증명서: 영문으로 발급 은행에서 직접 발급 받거나 친위확인 코드가 있는 서류 <잔고잔액 기준: 20,000,000 원 이상> 거래내역서: 잔액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계좌에 대한 3개월지 이상의 거래내역 (예외적으로 국문 허용)		X	
가족관계증명서: 영문으로 발급 후 해당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필수 - 비자신청자와 재정보증인의 관계 증명서: 예외적으로 1개의 증명서 혹은 영외가 다른 2개 이상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자-부 혹은 모-부 혹은 모-그의 양계 형제 관계를 증명 가능		X	

3. 수업 정보 (1장)

① 수강 과목, 수업 내용 ② 수업의 분위기 ③ 수업강도 및 어학 능력 요구도

-스페인어 A1(Spanish A1), 영문학개론(Introduction to English Literature),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e Management)와 영어4(English IV)까지 총 네 강좌를 수강했어. 스페인어 수업은 글자부터 발음까지 기본을 다지도록 도와줬어. 주제에 맞는 어휘와 표현으로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A1 수업이라서 학습 난이도도 시험난이도도 어렵지 않았어. 강의내용을 어느 정도만 따라잡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수업이야. 초반에는 A1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스페인어로만 말씀하셔서 답답한 부분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어가 조금씩 들리더라고. 시험은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로 구성되어 있었어. 영문학개론 강의는 초기 영문학부터 배우지만 내용이 방대하고 자료도 많고 시험도 전부 주관식이라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 그렇지만 일관된 PPT자료로 진도를 나가는 수업이라 강의 중에는 주제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지. 인적자원관리 강의에서는 조직에서 인적자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를 정리한 이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

배웠어. 조를 구성하여 교수님께서 나눠준 자료를 기반으로 짧은 PPT 발표를 하기도 했어.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다보니 수강한 네 과목 중 가장 수월했어. 영어4는 평소 강의시간에는 여러 텍스트를 읽고 질문에 맞게 답을 쓰거나 이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자발적으로 나누었어. 학술적 글쓰기 실력 향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강의였는지,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 시험에서는 듣기, 읽기, 문법 및 어휘, 쓰기, 말하기 총 네 과정을 보더라. 일정 횟수 이상으로 결석하면 성적에 큰 지장이 생기는 스페인어와 교수님께서 출석을 일일이 부르는 인적자원관리 강의와는 달리 나머지 두 과목들은 대부분의 유럽 대학들이 그렇듯 출석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 내용에 대해 강의 도중에 질문하거나 교수님과 토의를 펼치는 장면을 볼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그런 점이 우리나라와는 다르다고 생각해. 어학능력을 요구하는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면, 스페인어가 서투른 교환학생들을 위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과마다 다양하게 있었어. 그래서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지. 자료가 많은 영문학개론을 제외하면 나머지 수업은 이해하는 데 크게 힘들지 않더라고. 교수님들께서 말을 빨리 하시거나 고난도의 어휘는 잘 사용하지 않으셨거든. 그러니까 영어를 조금이나마 공부한 사람이라면 수업을 따라잡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야.



4. 캠퍼스 생활 정보 (1~2장)

- ① 기숙사, 도서관, 식당 등의 학교의 전반적인 시설 및 서비스, ② 필드트립, 학생 활동 등 참여한 활동 정보,
③ 식당, 쇼핑, 주변 관광 등 학교 인근 지역 정보

-캠퍼스 내부에 있는 기숙사는 외부 숙소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지만, 리셉션이 상시 운영 중이라는 점, 건물 내부에 헬스장, 수영장, 외부 빨래방에 비해 저렴한 세탁시설, 스터디룸, 스크린과 탁구대, 폭신한 소파 등이 있는 오락공간과 같은 편의시설이 있다는 점, 식당에서 주6일 삼시세끼를 제공해준다는 점, 주1회 청소서비스 방문으로 청결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 카드키 사용으로 안전을 보장하고 방음이 잘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선택했어. 막상 살아보니 학교 내부에 있다보니 강의실과 가까운 게 엄청 좋더라.

학교 시설은 건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엄청 세련된 최신식은 아니었어. 그렇지만 건물 내부가 다 넓고 학생들이 편하게 머물거나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또한 캠퍼스가 오르막길에 없는 평지에 있어 산책하기 좋았고, 등교하거나 강의실을 이동할 때 편안했지.

인스타그램에서 @erasmusclubhuelva_oficial라는 계정을 보면 여러 활동에 대한 안내를 찾아볼 수 있어. 실제로 여기에 올라온 홍보물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타지역인 말라가와 세비야로 놀러가거나 우엘바대학 교환학생들끼리 모여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 학생들끼리 개인적으로 가는 것

이 아니라 단체로 이동하는 것이다 보니 시간적인 제약은 존재했지만 이동수단이 통일되어 편리했고,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학생들이 있어서 일정을 비교적 편하게 즐길 수 있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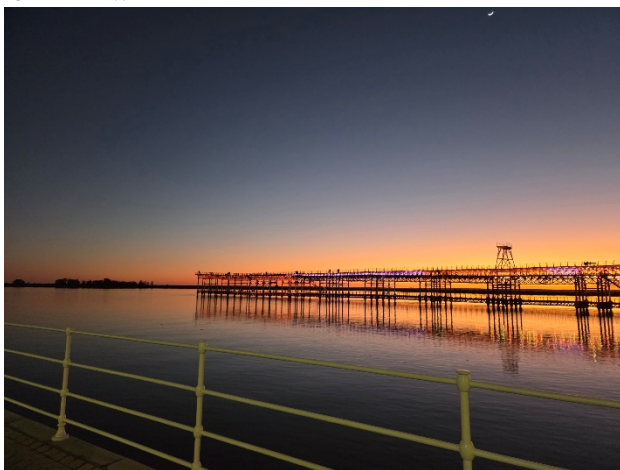
학교 인근 정보에 대해서는 El carmen, La merced 두 곳의 캠퍼스 중에서 기숙사가 있는 El carmen를 중점으로 설명해줄게.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네 곳의 마트는 3분에서 10분 사이에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그 중에서 가장 멀지만 큰 규모인 Carrefour는 Holey Shopping Center 내부에 있어서 오고 갈 때 같은 쇼핑 센터에 있는 상점들도 이용할 수 있어. ZARA, H&M, Primark 등 유명 브랜드의 매장도 있어서 쇼핑하기 편하더라. 그리고 아시안 레스토랑, Popeyes, Ilaollao 등 식문화를 즐길 장소들도 있어. 캠퍼스를 벗어나 시내 쪽으로 가면 우엘바 대성당과 콜럼버스 조각상처럼 우엘바의 역사적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도 있고, 많은 타파스바 등이 분포해있어서 스페인, 특히 안달루시아 지역의 식문화를 경험해볼 수 있어. 캠퍼스에서 시내까지 거리가 좀 있다 보니 버스를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난 버스카드를 사용했어. 현금으로도 탑승이 가능하지만 그보다 거의 절반 가격을 받는 버스카드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해. 여러 방법이 있지만 나는 TABACOS라는 담배가게에 가서 구매 및 충전해서 사용했어. 거기서 발급받은 카드를 세비야에서 시내버스를 탈 때 찍어봤는데 결제가 되더라. 이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학내 식당들을 비롯해 스페인의 모든 식당들을 방문할 때는 스페인의 식사시간이 우리나라보다 늦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아.

이 지역의 시장을 체험해보고 싶다면 Mercado del carmen을 둘러보면 돼. 과일, 육류, 생선 등 원재료를 주로 볼 수 있어. 그 주변에는 튀김이 맛있는 가게와 아시안 마켓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

시내 쪽에 있는 강 주변에는 넓고 깔끔한 산책로와 잔디밭이 있어 주말에 시간을 보내기 좋더라. 인상적인 일몰도 볼 수 있어.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가면 바다를 즐길 수 있어. 주변에 많은 시설이 있는 건 아니지만 타지역 유명해변에 비해 사람이 많지 않아서 넓은 해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야.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가 아니라서 영어가 잘 안 통한다는 점도 학교를 벗어나 관광할 때 유의해.



5. 홍보 (0.5장)

현지 학생에게 한림대학교 교환학생 홍보 활동

- 한림대학교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는 크게 두 번 정도 있었어. 첫번째 경우는 우엘바 랜드마크 중 하나인 Muelle de Riotinto 근처에서 열린 피크닉이었어. 현지 학생들을 포함해서 프랑스, 크로아티

아,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과 모여 자율적으로 간식을 먹거나 카드게임을 하는 시간을 보냈거든. 활발한 대화의 장이 열리며 서로의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때 한림대학교에 대해 약간의 홍보를 했던 것이 떠오르네. 또 다른 날에 여러 학생들과 버스를 타고 근처 바닷가로 놀러간 적이 있었는데 해변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학교가 대화의 화두에 올랐거든. 그때도 한림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었어. 두 행사에서 주로 이야기한 내용은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시설들이었지. 학교 캠퍼스에는 큰 운동장과 이를 둘러싼 트랙이 있어서 평소에도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지만, 학교 축제기간에는 여러 학과들이 주점이나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저녁에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 큰 무대를 즐길 수 있다고 말했어. 또한 두 곳의 헬스장과 규모가 큰 실내수영장이 있는 점도 어필했지. 이전에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학교 곳곳에 있는 산책하기 좋은 길과 조각상들을 자랑할 수 있었고, 시설이 좋은 도서관에 대해서도 설명하기도 했어. 학교 주변에 분포한 먹거리나 놀거리 장소들을 언급한 것도 좋은 반응을 얻은 지점이었는데. 식문화가 음주 문화가 발달한 스페인 학생들이 좋아했거든. 노래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엘바에도 생겼으면 좋겠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어.



6. 자기평가 (1~2장)

- ① 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
- ②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필요성
- ③ 파견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부분과 해결방법

- 교환학생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느꼈지만 그중 첫번째는 내가 너무 한 우물에만 있었다는 거야. 세 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권, 그 속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실을 은연 중에 알고는 있었지만 크게 자각하지 못하고 일단 지금은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전부라는 이념으로 지내왔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반성하게 되더라. 두번째로 느낀 건 가치관의 변화야. 이전에 같은 일을 겪었으면 좌절하기만 했을 수도 있는데, 홀로 떨어져 있던 파견 기간 동안 힘든 과정도 겪다 보니 이 모든 고난이 나중에 올 더 어려운 시기를 혼자서 극복할 수 있는 의연함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 또 다른 느낀 점은 스페인에서 지내다 보니 스페인어에 전보다 큰 관심이 생겼거든? 근데 스페인어는 이 나라 뿐만이 아니라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에서 통용되는 언어잖아. 그러니까 더 열심히 배워서 건문을 또 한 단계 더 넓힐 때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교환학생의 필요성을 말해주자면 익숙했던 집을 떠나 한 학기 동안 먼 곳으로 와서 겪는 새로운 경험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그보다 나아가 그 경험을 기반으로 더 넓어진 시야와 함께 더 큰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의미이자 필요성이라고 생각해. 그리

고 나에게 닥친 고난을 회피할 수도 없이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환학생의 필요성을 찾을 수도 있어. 이에 더해 모든 것은 확실하게 끝맺음을 지어야 한다는 등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다시금 배울 수도 있고, 여러 사람과 다양한 경험을 나누며 내가 인생에서 의미 있게 여기는 가치들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어.

파견기간 동안 힘들었던 것은 언어나 문화 장벽보다는 향수가 큰 비중을 차지했어. 가족이 너무 그리워서 한때는 sns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족들과 관련된 영상을 올린 것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한 방울 정도 나더라. 적응이 될수록 가족들은 금방 볼 수 있다고 생각을 다르게 먹기도 하고 영상통화도 자주 하면서 좀 나아졌지만 가장 큰 고난은 따로 있었어. 한식이랑 한국에서 먹은 음식들이 끝없이 떠오르는 거야. 엽떡, 마라탕, 불닭 같은 것들이. 그래서 급한대로 DotAsia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고추장이나 당면 등을 구입하여 방 안에서 만들어 먹어야 했지. 학기 중에는 여행을 간간히 다니면서 한식당을 찾거나 아시안 마트에서 라면을 구입하면서 조금씩 극복할 수 있었어.

